

동네방네

광양시, 청년 직업창출 위한 맞춤형 지원

광양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직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각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창직형 창업 지원)' 참여자 5명을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주관하고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전

남 청년 창직 전문가 양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부터 15명의 신규 창업 성과를 낸 바 있다. 모집 대상은 제품 형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광양시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전남=김용학 기자 jjiacecom@

인천 남동구, 모든동에 방문보건복지팀 신설

인천 남동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구는 인천 최초로 20개 모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보건복지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및 간호공무원 43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기존 방문복지 서비스에 건강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보건과 복지가 함께 제공되는 사업이다.

주요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돌봄 등 복지수요가 있는 지역주민들로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종합상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이와 연계해 지난달 30일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동장, 방문보건복지팀장 및 담당직원 등 90여명을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인천=백용찬 기자

완도군, 풍수해보험 최대 92% 지원

전남 완도군은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대설, 강풍, 호우, 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정책 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86.2%, 소상공인 59%가 기본 지원된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광주도시철도, 신종코로나 예방 방역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도시철도 용산차량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 영농 안정자금 2470억 투입

40여개 사업에 국·도비 지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132억 6개 직불제에 1800억 책정

경북도가 4일 올해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40여개 사업에 국·도비 247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나서며, 올해부터 개편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도는 먼저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32억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의 대형 농기계 및 특수미 생산을 위한 가공·유통 기반구축에 15억원, 벼 육묘장 설치 및 농자재 지원에 12억원을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으로 경북도의 벼 재배면적은 2016년 10만2941ha에서 지난해는 9만7465ha로 5.3% 줄었다.

도는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농기계 구입에도 87억원을 투입하고 중소형농기계 구입에도 39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의



벼가 누렇게 익어 황금색으로 물든 지난 10월 21일 경북 영천시 금동동 인근 들녘에서 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바탕이 되는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에 99억원, 자연순환 농업 정착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에 260억원을 투입한다.

잡곡 및 종자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잡곡단지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시설장비 지원에 1억원, 우수 종자·묘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5억원,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2억원 등 8억원을 지원한다.

직불제에는 1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다.

도는 올해 6개의 직불제(쌀 고정·변

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통합돼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국비예산 추가확보 및 제도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에서도 식량대책 관련 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홍기 기자 gj2136@metroseoul.co.kr

보성군, 스포츠 메카로... 체육인 3만명 방문

올림픽 대비 동계 훈련 목적 선수 수송지원, 관광안내 지원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등 혜택

보성군이 지난해 제58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해 역도, 축구, 야구, 배구 등 동계 전지훈련지의 최적지로 부상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보성군은 다양한 스포츠 행사와 전지훈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3만 명가량의 선수단이 보성을 찾았다.

또한, 보성군은 겨울철 온난한 기후 덕분에 겨울철 전지훈련 최적지로 선수단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도쿄 올림픽을 대비한 국가대표 역도단 동계 전지훈련 방문을 시작으로 축구, 야구, 배구, 역도 등 11개 팀 1,000여명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위해 보성군을 찾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보성 회천 야구장을 찾



보성군이 동계 전지훈련지의 최적지로 부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노릇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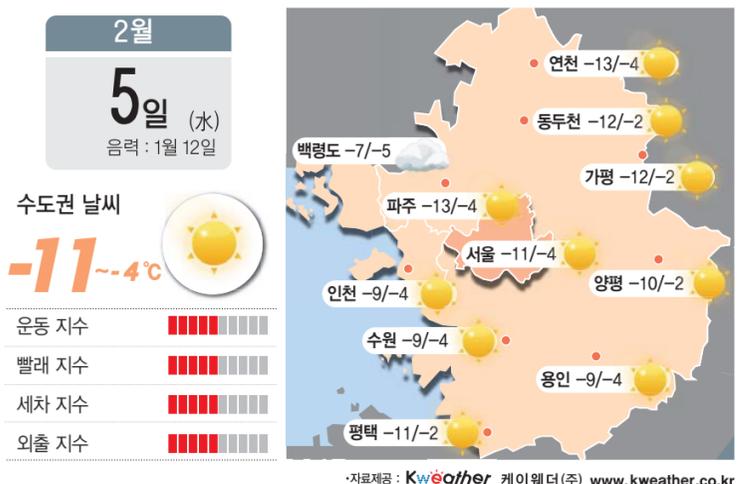
은 춘천중학교 야구단은 득량만 바다를 배경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배구 선수단은 별교 스포츠센터와 별교 상고체육관에서 스토브리그를 개최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7개 축구팀 200여명의 선수들의 스토브리그 개최가 예정돼 있다.

보성군은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주·야간 개방, 선수 수송

지원, 관광안내 지원, 율포 해수욕장 센터와 제암산 자연휴양림 훈련복 세탁 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3 | 해질 / 17:59



차 부품사 '동희산업' 김천에 344억 투자

2000㎡ 규모 생산 공장 증설 김천산업단지내 20여명 고용

경북도·김천시는 자동차 부품기업 동희산업과 공장 증설을 내용으로 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동희산업은 내년까지 김천 1일반산업단지내 334억원을 투자해 2000㎡ 규모 전기자동차 배터리 케이스 생산공

장을 증설하고 20여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2014년 입주한 동희산업은 전기차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말 고용인원 600여명에 매출액 3천600여억원을 기록했다.

동희산업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유럽 수출을 위해 제조라인을 증설한다.

동희산업 측은 "독보적인 제작기술로 생산하는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는 종전 내연기관의 철재보다 훨씬 가벼워 연비가 절감되고, 발열 저감에 따른 안전운행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동희산업이 공장 증설하고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기업 하기 좋은 경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경북=김홍기 기자